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음 2월 25일) 제202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새만금 개발 '호기' 현안 추진에 '총력'

새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발공사 설립준비단 출범 따라

전북도, 개발과 소속 6급 공무원 1명 파견  
도 의견 반영 통로 수행

새만금 산업용지 200만㎡  
도·군산시 등 공동 매입  
대규모 투자유치도 추진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의 호기를 맞아 현안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3월 20일 공포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준비단 출범을 추진함에 따라 전북도에서 공무원 1명을 파견했다.

공사설립준비단은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단장으로 4개팀(총괄기획, 법령조직, 재정세제, 사업기획팀) 12명으로 구성, 3월 말에 출범했다. 전북도에서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 능력이 뛰어난 새만금

개발과 소속 6급 공무원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도와 국토부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의 차질 없는 설립 및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파견 공무원은 공공주도 개발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도의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GM 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내 대규모 장기 임대용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총 2,950억원 투자를 통해 새만금 산업용지 200만㎡(약 60만평)를 새만금청, 전북도, 군산시가 공동 매입 후 지역경제 유효발효, 연관산업 육성,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한다.

본 사업은 2008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와 경자청 간 협약사항에 근거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그간 전북도에서는 전액 국비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에서는 2015년 국비 50억원을 반영

한 이후 2016년부터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며 예산반영에 미온적이었다.

최근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새만금산단 내에 최장 100년 임대 가능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장기임대용지를 선호함에 따라 적기 확보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에 포함되었으나 2018년에 100만㎡(약 30만평) 조성을 위한 국비 900억원이 정부 추경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중 마지막 남아 있던 산업지구와 관광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최종 해제된다.

해당 지구는 2013년 9월 1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폐지되고 소관업무가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 처리의 비효율과 두 개의 특별법 적용 등의 문제로 산업부 등에서 해제 필요성이 절감 제기된 지역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는 9일 전주한옥마을 내 옛 창작예술공간에 조성된 전주한옥마을 역사관에서 박순종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도·시의원, 한옥마을 문화시설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관 개관식을 가졌다.

## 전주한옥마을의 역사·유래 한눈에

시, 역사관 개관... 사진 전시·숨은 이야기 등 담다

연간 1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의 역사와 유래, 변천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역사관이 문을 열면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려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넘어 글로벌 문화도시로 우뚝 서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전주한옥마을에는 지난해 연간 1100만7033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해마다 방문 관광객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전주시는 9일 전주한옥마을 내 옛 창작예술공간에 조성된 전주한옥마을 역사관에서 박순종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도·시의원, 한옥마을 문화시설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에서 참석자들은 경과보고와 기념사·축사, 테이프커팅, 시설관람 등을 함께 하면서 전주한옥마을을 지속가능한 명품 관광지로 보존·발전시키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옥마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알려주기 위해 조성한 역사관 개관을 기념하고 축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스

전주한옥마을을 역사관은 시가 지난해 한옥마을 은행로에 위치한 옛 창작예술공간의 한옥 2개동을 리모델링해 한옥마을의 역사와 유래, 현재와 미래를 담은 전시관으로 만들었다.

또한, 기존 주차장이었던 공간도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쉼터이자 문화공간이 될 놀이마당으로 탈바꿈했다.

역사관 상설전시실에는 한옥마을의 유구한 역사를 연표형식으로 담은 전주한옥마을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부에 설치된 5개의 모니터에는 △한옥마을 사람들 인터뷰 △한옥마을 과거와 현재의 모습 비교 △한옥마을 공간에 얽힌 일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옥마을 내 주요명소를 입체영상으로 만날 수 있고 가상현실(VR)체험도 가능하다.

기획전시실에는 전문가 자문 및 전시 콘텐츠 제작 등을 거쳐 △옛 사진 전시로 전주한옥마을의 근대로의 여행 △어제, 그리고 오늘을 잇는 전주한옥마을의 숨은 이야기 △전주한옥마을에서 촬영했던 영화와 드라마 등을 담아 전시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한옥마을 역사관 담장 주변에는 한옥담장과 잘 어울리는 키가 작은 다양한 초화류 등을 식재했다. 이곳은 향후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의 추억을 담은 포토존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따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관광지이자 세계적인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의 참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전주한옥마을 역사관이 200만 관광객시대를 열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한옥마을의 정체성 확보로 전주가 다시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명품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한옥마을을 역사관은 시민들에게는 한옥마을의 기억을 되짚는 공간이자, 관광객들에게는 한옥마을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는 뜻깊은 공간이 될 것"이라며 "타 지역 한옥마을들과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부각시켜, 전주한옥마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문 대통령 "추경, 신속 집행토록 국회 대승적 결단 부탁"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9일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의결돼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구체적 용도와 기대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래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

고, 국민들께서 총리의 시정연설을 주목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보회의 시간을 늦췄는데 시정연설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됐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의 부담을 안 주고 지난해 결산인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활용해서 편성했다"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올해 초과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최근 수십년 동안 가장 규모가 작은 이른바 미니 추경으로 편성했다"며 "그러나 용도로 보면 청년일자리 대책과 군산·통영 등 특정 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제 때 집행이 되면 두 가지 용도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취업난의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정 산업 구조조정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특별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의 의견도 같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가상의 반대가 있으리라고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 이후 추경을 편성해서 추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스

**풍요·융화·품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세계 최장의 33.9km 새만금 방조제!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군산시 GUNSAN CITY**

제5회 한옥마을 품바명인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